

서지데이터 요소 채기 우선순에서 표제지의 기능성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ality of Title Page of the Cataloguing

남 태 우 (Tae Woo Nam)★★

초 록

본고에서는 서지데이터요소의 채기 과정에서 거의 신성권을 보장받았던 표제지의 기능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지통정상에서의 표제지의 출현배경과 그들의 개념정립을 고찰하였으며 편목과정에서 어떻게 취급하였는지도 규명하였다.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환경에서의 표제지에 대한 탈-서지적 과정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title page of a book is a reliable source, since it, together with its verso, usually contains all bibliographically significant data. Generally, the title page is a page at the beginning of a book giving its title and the names of the author and publisher. Prescribing a source of information from which data elements should be derived is a way of specifying how an entity can represent itself. In simpler times, when bibliographic entities were for the most part books published in Western countries, the choice of source was obviously the title page, the "face of the book".

키워드; 표제지, 표제지의 출현, 표제지의 기능성, 서지데이터 우선채기

★ 이 논문은 2003 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namtw@cau.ac.kr)

- 논문접수일 : 2004. 2. 15.
- 게재확정일 : 2004. 3. 4.

1. 서론

지식이나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을 지적기술이라고 하며 이들을 통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적도구들을 사용한다. 이를 총칭하여 서지통정이라고 한다. 서지통정은 일종의 힘이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처럼, ‘지식 자체가 힘’이라고 한다면, 서지통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힘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즉, 문자에 의하여 기록된 지식을 획득하는 힘인 것이다. 편목과정에서 이러한 힘을 발휘케 하는 중요한 서지적 데이터는 표제지에서 창출된다.

Lois M. Chan에 의하면, 서지통정이란, “기록된 정보를 조직화 내지 배열하고, 그 결과 검색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색인, 목록, 분류는 서지통정을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한 예이다.”(Chan 1981, 3) 이 정의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특정 형태의 문헌(예컨대 시청각자료), 특정 주제의 문헌(예컨대 문헌정보학 문헌), 특정 출판자가 출판한 문헌(예컨대 정부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는 서지도구의 정비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용례는, 서지통정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으로서 서지, 색인, 장서목록 등 2차 자료를 고려하여 그러한 도구의(이용자 스스로의, 또는 사서의 중개에 의한) 이용이 가져오는 효과에 착안하고 있다. 둘째, 특정 도서관의 문헌에만 한정시켜 그 곳의 서지 도구인 목록의 정비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셋째, 주제, 형태, 출판자, 소장 도서관을 한정시키지 않고, 어느 지역(보통 한 국가 내) 혹은 전 세계에 걸친 서지 도구의 정비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로, 국가 서지통정, 세계 서지통정이라는 용법이 있다. 이러한 수단 중 중요한 것이 네 번째로 언급할 만한 용례이다. 기계가독목록 기술, MARC 포맷의 표준화, 목록규칙 통일, 전거과일 작성, 네트워크 방법 등은 각각 단독으로도 서지통정 수법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것은 목록(서지) 정보시스템을 만들 때의 기술적 방법이다. 다섯 번째 의미로서, 실제로 문헌을 수집·이용하기 위한 수단(분담수집·보존, 납본제도, 상호대차제도)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서지정보의 처리·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문헌을 제공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서지통정이 완결된다는 것은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장되었다.

이상의 용례를 정리해 보면, 전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떤 문헌군(群)의 서지정보를 처리하여, 검색을 위한 서지도구(서지, 색인, 초록, 목록 등)를 작성하는 과정 또는 그 작성 상황의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지통정을 넓은 지역 내지 복수 지역 사이에서 통합하는 과정이며,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실제로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수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제지의 기능성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의 구조는 문헌의 종류와 문헌자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어느정도 공통된 구조를 가진다. 어떤 문헌은 그 자체로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서지적 처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갖추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 문헌의 성격을 확인해주는 2차 문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통 단행본은 표지와 표제면, 목차, 여러장으로 구분된 본문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권말에 오는 각주나 주석, 대개는 저자이외의 사람이 작성하는 서문, 저자나 그 외의 인물이 작성하는 본문앞에 들어있는 저자 서문이나 서론 등이 있는데 이런 서지적 사항은 저자와 도서 자체, 취급한 주제나 저자의 의도를 소개하고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권말이나 장 뒤에 서지와 용어해석, 주제색인, 인명색인, 지명색인이 있으며 본문의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한 부록 등이 수반된다. 이와같이

문헌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문헌을 구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기 독특한 가치와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지, 표제면, 목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한 대부분의 서지적 데이터는 일반 관행상 고정된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편목의 기본원칙은 19세기에 최초로 공식화 되었고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파리원칙의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초기에 자동화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통적인 목록을 간단히 생성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은 원래 설계되지 않은 목록을 위한 모드검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기술적 진보는 이용자의 기대를 수반하고 경제적 압박은 현재 패러다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 개념의 이용은 현재의 개발된 것보다 폭넓은 편목지식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책과 그것과 유사한 객체의 기술과 접근점의 결정은 각각의 프레임과 생성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표제지의 해석을 포함한 인지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현재 편목의 합리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다수의 편목자들은 그들의 창조적 전문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이를 불행해 한다. 탐색경로를 제공하는 경직된 구조보다는 이용자가 항해하여 용이하게 목적지를 선택하여 도착할 수 있는 새 방향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이다. 아마도 편목자가 수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탐색과정이 이용자 위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편목자들은 서지통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행했던 끊임없는 활동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편목의 기본을 형성하는 개념들은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 중에 표제지의 신성권은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는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서지데이터요소의 체계 과정에서 거의 신성권을 보장받았던 표제지의 기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지통정상에서의 표제지의 출현배경과 그들의 개념정립을 고찰하였으며 편목과정에서 어떻게 취급하였는지도 규명하였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에서의 표제지 절대성의 붕괴도 예언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역사적 연구를 적용하였으며 때로는 비교연구도 수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표제지만 한정지어 연구하여 이표제지와 관련된지에 대한 연구는 함께 수행하지 못하였다.

2. 서지기술의 전통과 원리

최근의 정보기술 환경하에서는 서지기술의 원리도 확장된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서지접근 시스템에 있어서의 완벽성과 즉시성의 향상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희망이다. 목록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라는 편목부서의 압력에 더하여 온라인접근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J. E. Rowley는 이미 10여년도 이전인 1989년에 ‘AACR3’의 출현을 원하였으며, 또한 M. Gorman은 ‘HYPERMARC’를 원하였으며, 또한 B. B. Tillet는 ‘AACR3와 MARC III’ 이론을 전개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은 하이퍼텍스트 기술원리까지도 포함시키는 노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전통적인 서지기술의 원리를 규명하고 확장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2.1 서지기술의 원리

서지 기술에 대한 문헌에서, ‘원리’라는 용어는 서지 시스템의 목적, 서지코드의 일반적인

규칙, 서지어 구성 안내 방법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하였고, 또한 S. Lubetzky의 관점으로 사용하였다. 즉 “기본 방위를 나타내는 나침반이 없이는 지도를 작성할 수 없듯이, 어떠한 지침원리 없이 규칙 코드를 만들 수 없다. 설령 잘 만들어 졌어도, 기본 지침의 지식 없이, 근본적인 원리의 지식 없이, 어느 누구도 규칙 코드에 접근 할 수 없고 훌륭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Lubetzky 1953, 61-62).

서지어의 구상을 위한 두 가지 적합한 원리로는 ‘충분한 근거의 원리’와 ‘검약 원리’이다. 처음으로 Leibniz에 의해 확인되고 Ranganathan에 의해 개념이 붙여진 ‘공평의 법칙’(Ranganathan 1957, 52)인 충분한 근거의 원리는 각 디자인 결정의 배경은 방어적이고 제멋대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Ranganathan의 또 다른 규칙인 ‘검약 원리’는 디자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선택적인 방법과 전체의 경제성을 더 선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디자인 원리에 덧붙여, 서지어 디자인의 특정 원리가 있다. 이러한 것은 영미목록 문헌에서 인식하여 왔고, 실제로 다음을 내포하여 따르고 있다.(Svenonius 2000, 67-85).

2.1.1 이용자 편의성 원리

기술할 때 결정은 이용자의 관점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하위 원리인 ‘일반 이용 원칙’에 따르면 기술에 이용되는 표준화된 어휘는 다수의 이용자 어휘를 따라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가장 큰 옹호자인 C. A. Cutter는 “목록자의 용이함 이전에 이용자의 편의성에 우선하여야 한다”(Cutter 1904, 6). (Miksa 1983, 73) 라며 이를 목록에 관해 필수적인 원칙으로 주장했다. 또한 일반적인 이용 원칙은 Ranganathan에 의해 인정되었고, 그는 그것을 표목 탐색의 기준이라고 불렀다.(Ranganathan 1957, 35-36).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통제어 가운데 용어 선택에 관한 것들이다. 현재의 목록규칙에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잘 알고있는”, “확실하게 확인된”, “가장 자주 확인되는” 것과 같은 구문에 의해 참조된다. 주제 표목 원칙에 관한 IFLA 문헌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이용자 원칙”이라 부른다.(IFLA 1997, 8).

20세기 후반기에 이용자 편의성 원리와 일반적인 이용의 하위원칙은 연구의 대상이었다. 일련의 연구들은 이용자가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며 그들이 직면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연구들은 이용자 편의성 원리에 첨부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안, 그들 스스로의 결론을 예상했다. 하나의 결과는 이용자들이 매우 제한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보통 이러한 것들은 저자, 표제, 판표시, 발행자, 발행지, 발행일과 같은 서지적 인용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2.1.2 표현성 원리

기술은 정보 실체 자체를 기술하는 방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하위 원리인 ‘정확성 원칙’에 따르면 기술은 기술되는 실체를 충실히 묘사해야 한다. 표현성의 원리는 서지 실체를 그대로 나타내는 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구조화되는 서지기술을 필요로 한다. 기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실체를 잘못 표현한다면 기술은 부정확한 것이다. 서지 구문에서 정직한 기술 측면에서 정확성은 그대로의 사실적인 복사와 같다. 사실적으로 문헌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것은 서지 정보에 대한

확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하다. 만약 1) 그들은 자세히 상술된 정보원에서 나왔거나 2) 대문자나 구두점을 제외하고 그들이 거기에 나타난 형식으로 전사되었다면, 기술에서 메타데이터는 사실적으로 기술되거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은 동일한 서지 실체를 기술하는 두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생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데이터 요소를 가져오는 정보원을 규정하는 것은 실체 그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방법이다. 서지 실체들은 서양권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도서를 위한 것인데, 정보원의 채기는 “도서의 얼굴(face of the book)”이라는 표제지(title page)에서 한다.(LC. Processing Department 1946, 26). 1884년 C. Blackburn은 “나는 서지 법칙 중 하나는 표제 목록은 도서의 표제지를 옮겨 적어야 한다고 믿는다”(Blackburn 1884, v)고 했다. Lubetzky는 표제지에 관해서 “편목의 목적에 부합해서 가장 중요한 도서의 특징은 표제지에서 뛰어난 확인 태그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Lubetzky 1953, 41)고 했다. C. P. Ravilious는 표제지에 대해 “철로 채워진 서지 수집물의 자석”이라고 동일한 생각을 표현하였다.(Lubetzky 1953, 41). 또한 Cutter는 “표제지를 예찬하고” “가장 빈약한 특징을 기록했다; 생략을 위한 점, 삽입을 위한 각괄호, 선의 끝을 나타내는 수직선 등으로 세심함이 뒤따랐다. 심지어 팩시밀리 타입과 사진 모사에도 모방되었다”고 말했다.(Cutter 1904, 24). 이 이후로 표제지의 뒷면과 함께, 도서의 표제지는 확실한 정보원이 되었고, 보통 서지적으로 중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2.1.3 충분성과 필요성 원리

충분성과 필요성의 원리는 기술에 허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한계에 제동을 거는 검약의 원리처럼 적용된다.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는 않을지라도 기술 작성 비용이 수용되고 있는 데이터 요소의 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기술은 목적을 진술하는데 있어서 충분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위 원리인 ‘중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기술은 오직 서지적으로 중요한 요소만을 수록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철학자들은 본질적인 사물의 속성과 우연적인 사물의 속성을 분간하려는 시도와 기술의 성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서지 기술에 관련해서도 앞의 시도와 동일하다. 여기서는 서지적으로 중요한 속성과 중요하지 않는 속성을 분간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서지적인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침은 충족성과 필요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정보를 조직하려는 시스템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득 찬 서지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목적에 관계가 없는 데이터 요소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Panizzi는 기술은 하나의 저작관과 다른 판을 분간하고 유사한 판 사이에서 발행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함축적으로 서지 목적에 충분성과 필요성을 고려했다(Braut 1972, 42). Lubetzky는 그 관계는 명백하다고 했다. 1940년대까지 도서의 기술은 표제지에 모든 데이터 요소들을 충실히 재 인쇄 해야한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했다. Lubetzky는 이것에 반대하면서, 표제지가 아닌 대상이 기술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고 필수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표제지의 데이터 요소가 서지 대상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들은 배제될 것이다. 만약 데이터 요소가 표제지에 없지만 목적에 하나라도 충족시키기에 필요하다면, 그들은 도입될 것이다.(LC. Processing Department 1946).

서지 기술을 표준화하는 필요성 때문에, 충족성과 필요성의 결정을 받는 전문가 의견은

빈번히 국가적 국제적인 협회의 후원하에 일하는 태스크포스와 같은 정책적인 단체에 맡긴다는 것이다.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그런 단체들은 최소한의 데이터 요소 세트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한 예로 도서의 핵심 수준 레코드 표준을 위한 공동 목록 프로그램이 있다. 그 밖의 다른 것으로는 연속간행물 표준을 위한 공동 온라인 연속간행물 프로그램(CONSER)이 있고, 데이터 요소 세트는 서지 레코드를 위한 기능적 조건에 관한 IFLA 연구 그룹에 의해 서지 모델링의 실체를 통해 만들어졌다.

충족성과 필요성의 원리는 어떤 기술에 데이터 요소의 수를 확장(Panizzi가 한 것처럼)하거나 그것을 축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이용이 된다. 서지 중요성에 관한 결정은 어렵지만 전적으로 이용자나 전문가의 의견 문제는 아니다. 목적의 결정은 서지 실체를 확인하고 다른 유사한 실체와 구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요소들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개방적인 목적으로 결정은 이용자 요구와 결말을 균형 잡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2.1.4 표준성 원리

기술은 확장과 수준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서지 통정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는 표준의 완성과 계속적인 수정의 역사”(Hagler 1989, 199)라고 본다. 19세기 중반에 Jewett는 표준화를 종합목록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고 그는 스미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수용하기를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편목 규칙은 상세히 기술하는데 모든 곤란함에 있어 가능한 한 엄격하고 부합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목록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Jewett 1852, 8)고 했다.

서지 기술을 위한 표준화된 국제어의 발전은 20세기의 엄격하고 세계 각 나라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일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IFLA 임무 중 큰 부분이다.(Delsey 1989). IFLA의 표준화 활동 중 획기적인 일은 1961년 목록원칙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53개국과 12개의 국제 기구들이 만나 서지 정보 접근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와 선택에 관한 원칙에 동의했다. 8년 후에 또 다른 중요한 회의인 목록 전문가 국제회의(IMCE)에서는 서지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화 설치를 이끌어 냈다. 11년 후에 이 회의는 여전히 또 다른 역사적인 국제회의로 전수되었고 국제 기계 가독 목록 포맷(UNIMARC)을 개발했다. 표준화는 허용 정도의 여지가 있다. Jewett와 IMCE 전문가들의 일부는 서지 정보의 국제적인 교환이 서지 기술에 대한 최상의 표준화를 필요로 한다고 논의하였다.(IMCE 1970, 15-16).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표준화가 과도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과도한 표준화에 대한 위험 중의 하나는 이용자 편의성 원리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Cutt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때때로 응용 할 때 규칙에 대한 엄격한 일관성과 통일성은 이용자가 자료를 찾는 습관적인 방법에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버릇이 일반적이고 깊게 자리잡았을 때, 비록 이용자들이 무식하고 시스템의 무용을 요구하더라도, 목록자들이 이용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Cutter 1904, 6).

예언적으로, 한때 Cutter는 “편목에 대한 무 코드가 모든 사람의 관점에 맞게 채택될 수 있다”(Cutter 1904, 11)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50년 후에 J. C. M. Hanson이 계승하여 제창하였는데 “국제 코드는 현실성이 있어야하고 많은 사서들은 국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Hanson 1939, 134)고 하였다.

너무 현격하게 이루어진 표준화의 두 번째 위험은 서지 코드의 기초가 되는 이유든 관점을 다루고 있는 규칙과 정의를 수용하도록 시도된 코드를 비난하기 위해 법률주의적 (legalistic)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이러한 관점을 주장했다.(Osborn 1941). 게다가 Lubetzky는 “계속적인 규칙의 확장과 늘어나는 복잡함, 그리고 대체로 코드의 목적과 설계 모호성을 차분하게 볼 수” 없음을 스스로 알았다. 그의 질문은 “이러한 모든 규칙이 필요한가? 모든 것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가? 통일된 코드와 목적에 맞는 기본적인 설계인가?”(Lubetzky 1953, 1). 등이다. 그의 대답은 편목을 규칙을 따르는 노예이기보다는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P. Dunkin은 『*Cataloging U.S.A...*』에서 영미목록의 역사는 수년동안 법률주의(Jewett가 대표하는, 법)와 낭만주의 Cutter, Osborn, Lubetzky가 대표하는, 예언) 사이를 오고가는 동향이다(Dunkin 1969) 고 했다

표준화의 세 번째 위험은 변화를 금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서지적인 변화를 필수적으로 피하지 않는다.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들이 바라는 대로 변화를 만들어 내지만, 돈의 지출, 정신 그리고 노력은 종종 변화를 막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MARC 포맷을 수정하고 서지 정보 교환과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훨씬 적합하기를 바라는 한편, 그래서 이러한 표준은 더욱 견고해지고, 수년동안의 협력을 통해 어렵게 성취하여, 주요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데 필요한 공들이고 시간을 소비한 정치적 메커니즘을 움직여서 설치하는 것을 거의 선택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2.1.5 통합성 원리

통합성 원리는 모든 미디어에 대해 오직 자료 특성 속성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편적인 규칙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표준화 원리와 통합성 원리는 기술-전자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후자는 자료의 유형을 통해-에서 반드시 통일형식을 갖추고 있다. 매체에 상관없이 형체가 있는 서지 실체를 기술하는데 있어 통일성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것은 목록의 목적, 특히 배열 목적에 맞다. 이것은 서지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주면서 이용자 편의성에 적합하다. 경제적인 표현을 하면서 검약의 원리에 맞다.

이와같은 이용자 편의성, 표현성, 충분 필요성, 표준화와 같이 통합성 원리도 서지어 구조의 지도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설계 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제공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른 것도 같다. 설계는 선택적이다. 원리를 참조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이 최고인 것은 분명하다.

이와같은 서지원칙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현규섭은 1983년에 『서지기술의 원칙확립을 위한 각서』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는 서지기술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시키고 있는데 Elaine Svenonius가 제시한 5가지의 원리와 유사하다.

제1원칙(歷史性的의 原則): 서지기술은 한 문헌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음을 기록하는 사실 증명서이다. 기술된 목록은 한 시대, 한 시점에서 발생한 문헌의 존재를 기록하는 행위의 소산이어야 한다.

제2원칙(事實通知의 原則): 서지기술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이를 통지하는 작업이다. 문헌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 세대에 도는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통지되어야 한다. 문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은 다른 진실에 의하여 보기될 수는 있다. 즉 있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진위가 밝혀진 것은 보족하여 기록될 수 있다.

제3원칙(消去價値의 原則): 기술되는 요소의 배치순서는 한 요소가 소거될 때 미치는 전체 기록에 대한 가치(즉 소거의 효용가치)로서 판정한다. 한 요소가 소거될 때 전체 기록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측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소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소거가치가 높은 것(예컨대 서명)과 극단적으로 낮은 것(예컨대 삽도표시)은 분명하게 순차 지을 수 있다. 소거가치가 높으면 그 요소는 선행되어야 하고 소거가치가 낮으면 그 요소는 후속적이어야 한다. 요소들은 결국 소거가치의 한계효용에 따라서 순차 지워진다.

제4원칙(識別性의 原則): 소거가치가 동등한 요소의 배치순차는 식별의 효과로서 차등지운다. 소거가치는 때로 동등하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교되는 요소의 식별력을 기준으로 배치순차의 결정요인을 삼는다. 식별력에 의한 배치순차는 구분력이 강할수록 선행되어야 하고 구분력이 약할수록 그 요소는 후속되어야 한다.

제5원칙(標準性의 原則): 한 목록자에 의하여 작성된 서지기술은 다른 목록자에 의하여 재 반복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목록자의 경험이나 성향, 지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문헌의 서지기술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표준성이 유지되는 논리적 기반은 재 반복의 동일성과 일치한다.(현규섭 1983, 6-7)

Svenonivs와 현규섭이 주장한 서지기술의 원칙은 모두 5가지 원리이다. 그런데 그 원리의 속성은 조금은 다르게 평가가 가능하다. 전자는 실질적이며 미시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상당히 명목적이고 거시적 시각에서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서지기술의 원칙이 책의 물리적 내용적 모두를 포괄하여야 한다는 관점과 이용자의 편의성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기술 환경하에서는 확장된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서지접근 시스템에 있어서의 완벽성과 즉시성의 향상이라는 이용자들의 희망을 보유하고 있다. 목록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라는 편목부서의 압력에 더하여 온라인접근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형성하는 많은 요인들은 있는데 주요한 것들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담편목에 대한 의존도: OCLC의 발단 이래 분담편목은 효과적인 도서관 업무과정에서의 중심이 되었다. 오프라인 편목은 지나치게 비싸서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반드시 분담되어야 한다.

2) 이용자가 목록을 탐색하는 방식에서의 변화: 온라인 목록은 실제 이용자가 행동과 요구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 주제탐색의 본질: 주제탐색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도서관의 주제 편목에 대한 조사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4) 최근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인 자관목록들의 링크: 목록은 더 이상 Cutter가 목록의 목적에서 언급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만을 보여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이용자를 위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5) 외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자관 목록의 지속적인 확장: 도서관의 목록들은 더 이상 도서관에 의해 생산되고 제어되는 레코드들만 구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온라인 목록들은 이미 다양한 자원들로부터 얻은 초록과 색인 레코드들을 포함하면서 확장되어 왔다. 도서관들은 또한 온라인 목록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문파일과 다른 비서지적 파일들을 생성하기 시작하였다.

6) 도서관 장서의 새로운 포맷들의 출현: 기록지식의 종이기반 자료가 여전히 만연된 형태

이지만 새롭게 나타난 전자 포맷과 마그네틱 포맷들도 풍부하며 그것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목된다.

7) 다양한 버전들의 확산: 새로운 매체의 도입, 출판유형의 변화, 소장의 감소, 그리고 전자 문헌에 대한 버전들의 확산되고 있다.

8) 온라인 장서점검 제어에 대한 필요성(Gregor & Mandel 1991, 42-47).

이러한 경향은 편목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요구들을 제기하며, 따라서 서지기술의 원리도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쇄자료의 서지원칙은 MARC에 의해 작성되고 웹 자원은 DC로 작성되는 등의 과도기에 서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 시킬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아직까지는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J. E. Rowley는 이미 10여년 이전 1989년에 『*Towards AACR3*』(Rowley 1989)에서 ‘AACR3’의 출현을 원하였으며, 또한 M. Gorman은 1992년에 『*After AACR2R*』에서 만약 MARC가 격렬하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AACR2의 급진적 개조를 위해 공개될 것이고, 그 결과는 단순히 AACR2의 개정을 넘어선 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마 그것은 AACR3는 아닐 것이며, 『*HYPERMARC Record Preparation Manual-Bibliographic*』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Manual은 무엇을 포함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Gorman은 그것이 AACR2와 같이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그 부분들은 기술과 접근에 관련이 있겠지만, 그 내용과 내부적 조직은 서로 매우 다른 것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Gorman 1992). 또한 Barbara B. Tillet는 『*Future Cataloging Rules and Catalog Records*』(Tillet 1992)에서 AACR3와 MARC III 이론을 전개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은 하이퍼텍스트 기술원리까지도 포함시키는 노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서지데이터 요소 채기를 위한 독서법

제 2장에서 논의된 서지데이터 요소의 효율적인 기술원리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록전문가들은 목록대상 자료들을 서지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문헌이든 출판형태에 따라 각각의 형태적 특징이 있다. 물론 내용적 특성도 수반한다. 특히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에는 일정한 서지적 패턴이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서지적 구성은 목록 작성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요소가 일반적으로 접근점이 되기 때문에 서지적 데이터의 생성이 필요한 것이다. Bohdan S. Wynar와 Margaret Mann 등은 효율적인 서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도서를 기술적으로 읽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이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도로 J. Ph. Immroth는 1971에 발표한 그의 『*Library cataloging*』에서 서지 기술이나 기술목록작업은 서지사항의 요소를 추출한 것이므로 포맷이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기술분석’이라고 하였다. 문헌의 생성과정과 그 서지적 구성에 대한 분석, 또는 문헌 자료의 통계학적 고찰인 계량서지학의 연구 등이 발생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서지데이터를 생성할 때 도서자료의 서지사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Mann과 Wynar가 설명한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Mann은 『도서를 기술적으로 읽는 방법론 *How to read a book technically*』(Mann, 1943, 12-27)을 제시하여 용이하게 서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한편 Wynar는 『목록대상 아이템의 기술적 독서법 *Technical reading of an item to be cataloged*』(Wynar 1985, 19-23)을 제시

하고 있다. 한편 Kumar 등은 『목록자를 위한 정보원 Sources of Information for a Cataloguer』에서 기술적인 독서법을 강조하고 있다.(Kumar & Kumar 1986, 65-68). 이들은 서지레코드의 생성시에 정확한 서지적 기술사항을 적출, 기록하기 위해서는 도서의 각 부분에 기재된 정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적 독서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목차나 서문을 읽음으로서 내용을 통독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목록기술이나 분류작업이 가능하다.
- 2) 권말에 게재된 인용문헌이나 내용색인 등처럼 논문이나 전문용어가 기재되어 있음으로서 저자의 전문분야나 주제내용이 파악될 수 있다.
- 3) 표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자명과 그 칭호 소속기관명, 서문 중에 시사된 것을 통해 저자의 윤곽을 알 수 있다.
- 4) 표지의 서명과 표제지에 표시되어 있는 상세한 서명이나 부서명, 목차의 장이나 항목 등을 통독하므로써 본문의 내용을 추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 5) 목록작성 담당자는 도서나 기타 자료의 본문이외의 곳에서 다량으로 읽는 습관을 일상화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 책의 도서를 통독하여 비판하는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다수의 서적이나 문헌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6) 도서의 구성은 일반적 특징과 각각 언어에 따라 개별적 특성이 있다. 일반적 특징은 표지→약표제지→표제지→서문→목차→본문→참고문헌→색인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개별적 특징은 동양서의 경우 판권기가 따로 있으며, 프랑스어 독일어 등도 간단한 판권기가 있다.
- 7) 해당도서와 관련해서 동일저자의 저작이라든지 일련의 판의 개정, 유사테마의 저작이나 문헌이 출판된다든지 서문이나 인용문헌, 기존의 목록이 있다든지 고려 할 수 있다. (志村尙夫 1981, 150-151)

3.1 목록규칙상의 기술의 정보원

기술의 정보원은 도서의 서지사항(식별요소)을 기술함에 있어서 무엇을 전거로 하였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원칙이 ISBD(M)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ISBD(M)의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물을 기술함에 있어서 사용될 정보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소정의 전거(권위 있는 근거)에서 채기한다. 만약 그 정보가 제 1의 전거로부터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제 2의 전거로부터 취하고 제 2의 전거로부터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제 3, 제 4의 전거로부터 취한다. 여기에서 물론 제 1전거는 표제지를 지칭하고 있다. 2-4에 이르기까지도 기본적으로 표제지를 지칭하고 있다. 다만 표제지에 없을 경우에 다른 서지적 실체를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서지기술에 있어서 표제지 우선순위의 제 1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편목규칙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2년판 ISBD(M)에 규정된 정보원과 우선순위 그리고 지정정보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0.5 정보원(sources of information)

출판물의 기술에 사용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서 해당 출판물의 표제지 그리고 특정 사항에 대해 규정된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채기한다.

0.5.1 정보원의 우선순위

단권본 출판물이 둘 이상의 표제지(표제지는 해당 출판물의 표제지가 없을 경우 표제지 또는 대체 표제지를 참조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선정되는 표제지는 기술대상 출판물에 대한 특징적인 표제지이다(예를 들면 총서에 포함된 단행본의 경우, 해당 권의 표제지; 영인본의 경우, 복제본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된 표제지; 1.1.3.2도 보라).

다권본 출판물이 각각의 부분에 대한 표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선정되는 표제지는 첫 번째 부분의 표제지이다.

전체 출판물에 적용되는 표제지는 없으나 전체 출판물에 포함된 저작이 그 자체의 표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저작을 담고있는 떼뜨베슈 출판물(tete-beche publication; 한 출판물 내에 한쪽이 반대 방향으로 인쇄되어 있는 출판물)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표제지는 종합적으로 하나의 정보원으로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출판물에 표제지가 없을 경우 대체표제지를 대안적 정보원으로 선정한다. 대체표제지로 취급되어야 할 정보원의 선정은 어떤 정보원이 가장 완벽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해당 출판물 이외의 정보원보다는 해당 출판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원에 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로마자 이외의 문자로 된 출판물일 경우 완전한 서지 세부 사항들이 판권지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표제지의 위치에 있으면서 본서명을 수록하고 있는 장(leaf)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제지로 간주한다.

- A. 해당 장(leaf)에 약표제지(half-title page)의 방식으로 본서명만 나타나 있는 경우.
- B. 해당 장(leaf)에 다른 서지정보와 함께 또는 다른 서지정보없이 필사된 형식(형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인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의 전통형식으로 기재된 판권지의 완벽한 서지적 세부사항)으로 된 본서명이 나타나 있는 경우.
- C. 해당 장(leaf)에 서명 및 출판 세부 사항들이 서양어 버전으로만 나타나 있는 경우.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대체 표제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판권지이다.

0.5.2 지정정보원

각각의 사항에 대한 특정 정보원은 “지정정보원(prescribed sources of information)”으로 명시한다.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정정보원 이외의 정보원에서 채기한 정보는 그것이 해당 사항의 일부분으로 옮겨 적었을 경우 각괄호로 묶어 적는다. 별법으로 그와 같은 정보는 주기 사항에 각괄호 없이 기재할 수도 있다.

사 항

지정정보원

1. 서명저자표시사항	표제지
2. 판사항	표제지, 여타 권두지면, 판권지
3. 자료(또는 발행유형)특성사항	ISBD(M)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발행, 배포 등 사항	표제지, 여타 권두지면 그리고 판권지
5. 형태기술사항	해당 출판물 자체
6. 총서사항	표제지, 여타 권두지면, 표지, 책등, 판권지
7. 주기사항	모든 정보원
8. 표준번호(또는 별도기호) 및 입수조건 사항	모든 정보원

한편 2003년판 한국목록규칙(KCR)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ISBD(M)에 준거하고 있다.

1.0.3 기술의 정보원

1.0.3.1 (정보원의 우선순위) 기술은 원칙적으로 자료 자체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기재하며, 그 준거는 해당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채기한다.

- 1) 자료자체(카세트, 카트리지 포함)
- 2) 딸림자료
- 3) 자료 자체와 분리 가능한 용기(상자나 함)나 표지 등
- 4) 자료 이외의 정보원

1.0.4 기술구조와 제요소의 기재순서

자료의 식별에 필요한 제요소를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기재한다. 다만 자료특성사항은 해당 자료의 규정을 따른다.

-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가) 본표제, 별표제
 - 나) 자료유형
 - 다) 대등표제
 - 라) 표제관련정보
 - 마) 권차, 회차, 연차표시
 - 바) 책임표시

1.0.5 기술방법

1.0.5.1 (기술원칙) 다음의 서지사항을 기술할 때는 대상자료에 쓰여진 언어나 문자 그대로 적고 그의 보기(補記)도 앞 뒤 어구의 언어나 문자에 일치되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2) 판사항
- 3) 발행사항
- 4) 총서사항

또한 NCR 2001년 개정판에 의하면 기술의 정보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0.3 ‘기술의 정보원’

1.0.3.1 (기술의 정보원) 기술은 그 자료에 근거하여 정보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전기의 원칙(1.0.6.1참조)에 따라 그대로 기록한다. 기술에 근거하므로 정보원은 자료를 구성하는 각부분에 기반하여 다음과 우선순위를 가진다.

- 1) 자료본체(카세트, 카트리지등을 포함),
- 2) 부속문자자료,
- 3) 자료본체와 분리 가능한 용기(箱, 帙등), 커버 등,
- 4) 그 자료가외의 정보원 으로 규정하고 있다.

1.0.4 기술되는 서지적 사항과 그 기록순서

모든 자료에 공통되는 서지적 사항과 그 기록순서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자료에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료(또는 간행방식)의 장에서 정한다.

- 1) 타이틀 및 책임표시에 관한 사항
 - 가) 본 타이틀,
 - 나) 자료종별(임의규정에 의한 사항),
 - 다) 병렬타이틀,
 - 라) 타이틀에 관한 정보,
 - 마) 책임표시

1.0.6.1 轉記原則

NCR 2001년 개정판 1.0.6.1항에서는 轉記原則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자료를 기술할 때 다음의 서지적 사항은 원칙으로서 기술대상자료에 표시되어 있는대로 기록한다.

- 1) 타이틀과 책임표시에 관한 사항, 2) 판에 관한 사항, 3) 출판·반포 등에 관한 사항, 4) 시리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표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제지에 있는 그대로 전사한다는 원칙은 표제지의 신성불가침을 의미하며, 저작자의 자유와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목록관행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원칙을 모든 편목규칙에서는 원칙화 하고 있다.

이상을 분석해 보면 서지데이터 요소의 기술에서 표제지의 갖는 권력이란 거의 정보의 독점권 또는 전제권에 해당된다. 더구나 표제지에 나타난 서지정보가 틀릴지라도 ‘그대로 전사한다’라는 원칙은 신성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표제지의 우상’은 서지기술의 표준화의 기본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4. 목록학에서의 표제지의 정의

표제지(title page)는 문헌자료 중에서 가장 상세한 서지 사항이 집중되어 있고, 그 문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완전한 서명이 기술되어 있고 그 서명은 서지 데이터 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본서명으로 취급되어 본서명(title proper)으로 호칭되고 있다. 양서의 표제지는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본서명, 저자, 발행자 등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기술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부서명(subtitle)이나 별서명(alternative title), 대등서명(parallel title)은 본서명에 이어 기재된다. 부서명은 본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든지, 한정시키기도 한다. 별서명은 본서명과 다른 말로 변환시킨 것이다. 또한 대등 서명은 본서명과 다른 언어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요한 성격규명을 OED에 의하면 “도서의 표제 그리고 저자명과 출판사항을 수반하는 도서의 시작페이지를 표제지”라고 하였다.

4.1 용어사전과 편목규칙상의 표제지의 개념발전

1841년 Panizzi 91규칙과 1853년 판의 Jewett 규칙 그리고 1904년의 Cutter의 사전체 목록규칙에서는 표제지(title page)에 대한 정의는 용어정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단지 ‘표제지에 있는 그대로 전사한다’라는 규칙상의 규정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렇듯 표제지에 중점을 두고 표제지에서 표목을 채택하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는 표제지의 중요성을 편목규칙상 처음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anizzi 91규칙 제20조에서는 표제지가 없는 경우에 기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제지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콘텐츠, 헤드타이틀, 판권지를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17조에 서명, 판차는 표제지에 있는 대로 표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Jewett는 표제지에 나타난 정보를 중요시하였다. 표제는 저자명, 편자명, 역자명, 주석자명, 보유자명을 포함해서 표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정확히 완전하게 옮겨 쓰라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지 데이터의 채기에서 표제지의 중요성은 목록규칙에서 매우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거의 불가침성적인 원칙들을 내포하고 있다. 서지레코드의 신뢰성, 정확성, 역사성에 의해 그대로 전사한다라는 전통이 자리잡은 것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표제지에 대한 정의를 편목규칙상의 개념과 용어사전상의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다. 영미 편목규칙과 용어사전에 나타난 표제지의 정의들을 원문대로 그리고 연대순대로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사공철 등편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의하면 ‘표제면’에 대해서 2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는 “표제면(main title page): 목록기입으로 선정되는 표제가 있는 면”, 둘째는 “표제면 (title page): 도서의 본문 앞에 있는 면으로서 완전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서명이외의 저자나 편자, 발행사항 등이 기재된 면. 목록작성시 으뜸 정보원이 되는 곳이다”(사공철 1996).라고 정의해 주고 있다. 한편 제홍규 편저인 『한국서지학사전』(1974)에서는 기입어로 채택되어 않아 정의가 없다. 서지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서지학 용어사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出版・印刷・圖書館學・著作權・書誌・매스컴의 事典』에서 좀 장황하게 개념을 설

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표제지의 정의 및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표제지(title page)란 서적, 잡지, 팜플렛등의 권두에 있어 표제를 표시하는 페이지 특히 서적에는缺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표제(서명), 부제, 저작자(편자, 번역자, 감수자)명(때로는 그 직명), 출판사명을 載記한다. 구미에서는 표제지의 이면에 초판 발행년 및 그 후의 판 및 쇄의 년월차와 당해판·쇄의 년월, ©기호, 기타의 저작권계사항, 인쇄소 또는 인쇄국명 외에 미국에서는 의회도서관등록번호가 掲録돼 있는 것이 예이나, 일본에서는 이 유의 刊記사항은 거의 板權張(奥付)에 기재된다. 표제지에는 本속表紙(本扉)외에 前扉와 中扉가 있다. 표제지의 기원은 유럽에서는 14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사용한 최초의 책은 1500년 라이프찌히의 슈퇴켈(Wolfgang Stockel)에 의해 발행됐다고 한다. 17세기 이후 표제지는 다만 표제를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장정의 일부로서 인쇄나 레이아웃에 머리를 짜내야 하게 됐으나 금일에는 표제지의 이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본에서 표제지에 本文用紙와 다른 두툼한 上質紙를 사용하는 예가 많은 것은 造本上의 오래동안의 관행 때문이며, 本文用紙가 비교적 粗惡한 경우 표제지에 의해 불품을 좋게 해보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서적의 외장이 아니고 본문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표제지의 본질로 말한다면 구미와 같이 본문과 空紀여야 옳을 것 같다. 본래 일본에서는 타이틀페이지의 역어였으나 전후 도서관계의 원로가 속表紙를 잘못 부른 것이 오늘날 도서관에서 오칭해 왔다는 것이다. 양서에서는 표제지의 이면에 초판 발행년 및 그 후의 판이나 쇄의 년월, ©기호 기타 저작권계사항,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및 출판사의 소재지, 인쇄자명, 출판국명, cataloging in publication(CIP)등이 표시돼 있는 것이 많다. 삼도는 아켄덴 프레스간 세르반 페스의 《돈 기호테》영역판의 최초의 페이지로 좌상의 타이틀과 그 하에 장의 타이틀이 적 문자로 들어 있고, 이어서 장식문자로부터 본문이 시작된다.(정태원 1986, 627)

한편 영미계 용어사전 및 편목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제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이들 개념도 앞서 살펴본 동양적 관점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표제지의 개념을 서양적 목록의 관점에서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ALA 용어사전에는 표제지란 본서명과 그리고 필연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책임표시사항과 출판물에 관련된 데이터에 관한 서지적 아이템의 시작페이지를 말한다. 표제지를 가진 장(leaf)을 일반적으로 표제지라고 호칭된다.(AACR2), (Young 1983).

1908년의 AA Code에서의 “표제지란 서명과 출판사항이 인쇄된 도서의 시작페이지를 말한다(AA Code 1908, xvi.)라고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1949년의 ALA Rules의 정의에서는 “표제지란 완전한 표제,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항상 저자(편자 등)명과 출판사항을 수반한 도서나 저작의 시작하는 페이지를 말한다. 표제지를 수반한 장을 비록 적합하게는 표제 장(title leaf)이라고 호칭되지만 일반적으로 표제지라고 호칭된다.(ALA Rules, 1949, 234). 1967년 AACR초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제지란 완전서명과 필수적이기는 않지만 항상 저자(편자)명과 출판사항을 수반한 발행물의 시작페이지이다. 표제지를 수반한 장은 비록 적합하게는 표제 장이라고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표제지라고 호칭한다.(AACR 1967)

한편 기계가독목록과 온라인목록의 등장 이후 개정된 편목규칙상의 표제지의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목록의 발전과정상에서 물리적 조건이 다른 형태에서 사용된 것들인데 표제지의 정의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AACR2 판 및 2판의 1988년판, 1998년판 그리고 2002년판의 용어정의에서 “표제지란 본서명과 반드시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책임표시사항과 출판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반한 아이템의 시작 페이지를 말한다. 표제지를 수반한

장은 비록 적합하게는 표제 장이라고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표제지라고 호칭한다.(AACR 2nd ed. 1978), (AACR 2nd ed. 1988 rev.), (AACR 2nd ed, 1998 Rev.), (AACR 2nd ed. 2002 Rev. Appendix D-8)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1967년 AACR 초판이전의 개념과 이후의 개념간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이용자의 이용행태 그리고 미디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서지데이터 요소의 채기 원칙에서 표제지의 기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라는 매체의 등장은 표제지의 관념을 송두리 채 변하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또한 ISBD(M) 2002년 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제지란 해당 출판물과 그 출판물에 포함된 저작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나타내는 보통 출판물의 처음에 오는 면으로 대개 완전한 서명정보, 저자표시 그리고 발행표시 전부 또는 일부를 수록하게 된다. 보통 표제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소가 중복됨이 없이 마주보는 두 면(two facing pages)에 걸쳐 나뉘어 있을 경우 이 두 면을 합하여 표제지로 간주한다.(ISBD(M) 2002. 6). 이 정의 또한 하이퍼텍스트 환경에 적합한 정의는 아니고 AACR의 정의와 거의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표제지에 대한 정의들은 규칙상의 정의 및 용어집에 나타난 용어 모두가 대동소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목록에서 표제지의 성격이나 기능이 다변화 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성격이 뚜렷하게 통일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몇가지의 특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1) 책의 실질상의 얼굴이며 시작페이지라는 것, 2) 서지데이터요소로서 책임표시 사항이 기술된 곳이며 3) 본서명과 부서명 기타 서명이 기재되며, 4) 출판사항을 수반하며, 그리고 4) 출판물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반하는 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 완전한 서지정보, 가장 중요한 정보원, 으뜸 전거의 준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지데이터 요소들은 목록을 작성할 때 매우 도서 자체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나타내 주어 정보검색의 기본적 단서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74년에 『보들레이언 도서관목록』의 서문에서 Thomas Hyde경은 목록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표제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이해의 부족을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다.(Pettee 1936, 79)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표제지를 보면서 서명을 쓰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 있을까?” 라고 한다.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몇 안 되는 개인소유의 책을 색인 하는 것이 1주일이나 2주일이면 되는 즐거운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도서관처럼 엄청난 분량의 책을 두고 어떻게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지, 이 때 생겨나거나 실감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집결된 수많은 책을 알파벳순으로 목록화하는 방대한 작업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들고, 여기에는 마음을 괴롭히는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3세기가 지나면서 이후 수많은 ‘책들’이 발행되었고, 정보를 조직화 하고자 할 때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는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났다. 정보 조직을 위해 그런 방대한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쉽게 설명되어 질 수 없는 문제였다.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가장 적극적인 그런 시도가 Panizzi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가 왕립 위원회(Royal Commission) 회원 앞에서 대영 도서관의 책을 조직화하려는 계획을 변론하던 때였다. 그

위원회의 많은 회원들이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고만 생각했었다. 위원회의 회원 중 가장 저명한 Thomas Carlyle은 Panizzi가 “허영심에 가득 찬 서지 전시”일 뿐인 목록을 구축함으로써 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비난할 정도였다.(Commissioners appointed...1850, Q5103). 이는 표제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그리고 문헌에서 서지데이터 요소 채기 원칙에서 표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4.2 표제지의 출현배경과 서지통정상의 기능

G. Kumar & K. Kumar는 편목에 있어서 표제지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표제지란 목록자에게 가장 중요한(the most) 정보원이다. 일반적으로 완전서명, 저자명, 협력자명, 발행사항(발행사, 발행지, 발행년도)를 포함한 문헌이나 장서의 페이지를 지칭한다. 도서전체 페이지의 상단에 서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난외서명이 기재된다. 난외서명은 표제지가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 표제지는 목록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정보원이다. S. R. Ranganathan에 의해 개관된 편목의 극단철학은 표제지 중심론이다. AACR1과는 달리 Ranganathan은 그의 CCC에서 적합 정보를 얻는데 표제지 이상만한 곳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AACR2에서는 AACR1보다는 표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CC에서 저록은 표제지나 표제지 이외에서 발견된 정보에 기반한다라는 표목과 다양한 항목의 선정과 표현을 주장하고 있다. 단지 소수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Kumar & Kumar 1986, 66). 본 절에서는 표제지의 출현배경을 분석하고 표제지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한다.

4.2.1 표제지의 출현배경

인류의 역사에 있어 책이란 것이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1,000년 초기로 추정되고 있다. 출현할 때부터 책 모양을 한 것은 물론 아니다. 글을 써서 보관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코텍스, 독우피(vellum)등의 가죽 종이류, 죽간목독, 비단, 금속판, 돌, 건물의 벽, 도로, 심지어는 인간의 몸(문신)까지도 모두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그러다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파피루스, 가죽종이, 종이가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고대 사람들은 파피루스 종이에 글을 쓰고 여러 장을 붙여서 길게 만들었다. 그것을 둘둘 말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편리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권(volumen)”이라는 개념의 시작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 도서관은 필사본의 ‘incipit’ 즉 본문의 첫 번째에 나오는 말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즉, 사본의 경우 오늘날 표제지에 포함되는 사항을 본문이 시작되는 최초 면 즉, 본문의 앞에 몇 행으로 기재했다. 이것은 시작의 뜻을 가진 ‘incipit’, ‘Cy Commence’, ‘Hiero Begtnneth’ 등과 또한 이것과 유사한 낱말로 시작하고 다음에 자료에 관한 기술과 저자의 이름을 추가했다(河合忠信 1970, 60). 그래서 ‘incipit’에 시작하는 몇 행은 본문과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주서로 필사하기도 하였다. 이 ‘incipit’에 시작되는 몇 행이 표제지의 역할의 일부를 감당했다.

그런데 가죽 종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책의 기술은 한 걸음 더 진보했다. 이제 두루마리와는 다른 형태의 책이 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풍의 “두 장짜리 서판(diptyque grec)”을

흉내내서 만들었다.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은 나무판 두 장을 묶고 거기에 초를 먹인 뒤 끝에 뾰족한 침필(stylus)로 글을 썼다. 이처럼 책 모양은 “두루마리(volumen)”에서 “코덱스(codex)”로 바뀌었다. 두루마리에서 코덱스로 변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두루마리에는 저자 이름은 물론 페이지 수를 표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코덱스에서는 표지, 목차, 페이지 수, 색인, 참고문헌이 나타났다. 이러한 서지정보의 패턴화로 학문은 더욱 정확하게 발전 할 수 있었다.(Casson 2001, 124-135)

본래 문헌의 표제, 즉 서명은 특정한 문헌의 존재를 나타내게 한 표기이고, 문헌에 혹시 시민권이 있으면, 그 시민권을 독자에게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었다. 고대·중세의 문헌에도 그 의미에서의 서명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헌의 호적에 등록되어야 되는 본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습관적으로 서명, 저자 등은 문헌의 판매촉진을 위해 편집자·출판자에 의해서 붙여지고 있는데 반하여 고대·중세에서는 그러한 습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중세에서는 오히려 독자가 서명을 붙여 그것이 구전되어지고, 통일적 명칭으로서의 서명을 얻는 형식이었고, 그런 과정으로 서명이 성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과정으로 서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그 과정은 중세수도원 목록의 편찬자가, 통칭되어 있던 서명을 목록에 기술함으로써 그 서명을 권위 짓거나 확정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차치하고 서명은 오늘날에는 문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동시에 그 정체성을 표시하는 통칭으로서 붙여지는 것이고, 그 때에 붙여진 서명이 본서명으로 간주된다. 후에 붙여진 통칭서명, 또는 관행상 통일되고 확정된 서명은 인쇄본의 출현과 동시에 없어지고, 또한 교대하여 표제지에 인쇄된 표제가 그 문헌의 정식 명칭으로서의 서명이 되어갔다.

표제지의 탄생은 어떤 역사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표제지 그 자체는, 인쇄본의 출현과 동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극히 초기의 인큐나블라(incunabla)에는 사본서적 같은 표제지는 없었다. 인큐나블라는 초창기의 사본과 마찬가지로 첫 장의 첫 페이지(recto), 즉, 양면을 접은 바깥쪽에서 본문의 텍스트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것이 제본상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었다. 제본될 시 본문이 시작되는 첫장의 첫 페이지 부분이 종종 더러워지거나 파손되기도 했다. 그래서 인쇄자들은, 첫 장의 페이지를 공백 페이지(blank)로 하여, 본문을 그 장(leaf)의 우수페이지(verso)에서 인쇄하도록 하였다. 극히 초기의 인큐나블라 중에는 표지를 열자마자 본문이 나타났지만, 표지를 열면, 우선, 공백 페이지가 나타나, 그것을 넘기면 그 뒤에서 본문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1460년대에 시작하여 꽤 일반화되었다. 이 공백 페이지가 표제지의 발생과 결부되어 있다. 인쇄자들은 그 공백 페이지 장을 이용하여, 사본시대에 권두·권말에 기재되어 있던 그 저작의 유래라든지 내용, 그 사본의 작성의 사정 등을 인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표제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澁川雅俊 1985, 103-104).

사본의 권말에 서사생들은, 사본의 완성을 신에게 감사하는 말과 동시에 서사된 저작의 유래라든지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되었으며, 서사에 대한 정보, 서사생의 이름이라든지 서사의 연월일등을 기록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본의 하나의 관행이기도 하였지만, 인쇄본의 제작에 있어, 인쇄자들은 그 관행을 받아들여 인쇄본의 권말에 그러한 것을 인쇄하였다. 이 권말에 인쇄된 저작과 인쇄에 관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바로 판권 페이지(colophon)이다. 그것은 표제지가 붙여지기 전부터 인쇄본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게다가, 표제의 실질적인 시원은 이 판권 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목록의 역사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16세기부터 서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도서의 표제지이다. 표제지의 도입은 필사(script)로부터 인쇄로 가는 가장 현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진보를 이룬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나 중세의 저자와 사자생, 사서는 표제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판인쇄술의 보급으로 인한 인쇄물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검색을 위한 목록작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표제지가 없었던 시대에는 기입에 불편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도서의 식별을 위한 곤란한 점이 적지 않았으나 표제지의 출현으로 이러한 난제의 해결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목록작성의 표준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인쇄술의 발명에 의해 저자를 익명으로 해두는 기술적인 이유를 상실해버렸다. 한편 르네상스운동은 문학적 명성과, 지적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오늘날의 표제지로 진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한 것은 저자명도 아니며 서명도 아니었다. 또한 이 표제지도 보통 낫 익은 장소, 즉 완성된 인쇄물의 제1매 내지는 더 일반적인 경우에 제2매 째에는 없었다. 자신의 이름과 작업을 완성한 날짜, 바램, 또는 코덱스의 말미에 그 밖의 간단한 주기를 하고자 생각했던 중세의 사자생의 관습의 연장으로서 최초의 인쇄자는 판권 페이지(colophon)로서 알려져 있는 것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표제지의 여러 특징 가운데 초기의 판권 페이지에는 그 일부만이 있었던 데 불과하였다. 즉 인쇄장소와 인쇄일, 인쇄자명과 인쇄자의 의장(device), 서명이 있었다(아직 저자명은 없었다).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판권기는 나중의 것보다도 충실하였다. 서명(psalmotum codex), 인쇄자의 이름, 인쇄장소, 완성된 정확한 일시가 있다. 실제로 표제지의 발명자는 Peter Schoffer였다. 그러나 과학의 다른 모든 영역의 수많은 발명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발명한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단 한번만 시도한 채로 그것을 단념하였다.

그 다음으로 표제지를 붙이는 시도를 했던 사람은 쾰른의 인쇄자 Arnold Therhoeren이었다. 그것은 Werner Poleuinckt의 『행복한 마리아의 출현에 관한 설교 *Sermo de praesentatione beatae Marie*』라는 소책자로 이것은 그곳에 장수(foliation)가 삽입된 최초의 출판물의 하나였다는 또 다른 점에서 중요하다. 페이지에 숫자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자를 돕기 위하여 아주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에 의한 페이지 부여가 완성된 것은 16세기 초의 일이다. 페이지 부여에 앞서 난의 표제지(catchword)의 삽입, 즉 앞 페이지의 아래에 그 페이지 최초의 단어(또는 부호)를 반복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난의 표제어가 최초로 나타난 것은 1469년에 John of Sapeier가 빈에서 인쇄한 『타키투스 *Tacitus*』에서였다.(瀧川雅俊 1985, 103-104).

이러한 초기의 표제지와 이후의 많은 표제지는 실제로는 현재의 약 표제지를 대신하고 있으며 아마도 최초로 인쇄된 페이지가 제본사의 손에 넘어 가기 전에 인쇄소에 보관해 두는 사이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는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빈틈없는 상인들은 아마도 인쇄소, 출판사, 서적상의 기능을 혼자서 떠맡고 있었을 것이지만 완전서명이 갖는 본래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최초로 다루었던 사람은 아우구스부르크와 베니스의 Erhard Ratdolt이다. 그가 만든 『Johannes Regiomontanus』작성의 1476년의 천문학적, 점성술적 달력에는 우리가 표제지에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일체의 것을 실은 페이지가 붙어있다. 이것에는 찬미를 담은 시가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저자의 친구에 의한 소개서문, 또는 감사를 담은 서평에 상당하는 것이다. 전체 페이지가 아름다운 목판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 본문자체와는 확실히 구별되고 있다.(瀧川雅俊 1985, 103-104).

이 달력은 잘 팔렸기 때문에 Ratdolt는 그것을 원래의 라틴어와 자국어의 양쪽으로 재판

을 인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면 표제지는 보호용 표지라는 기술적인 잇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동시에 책을 광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값싼 수단이었다. 표제지를 가진 최초의 ‘재쇄’(reprint)는 Giorgio Arrivabene에서 나온 『불가타 성서 Vulgate version』로서 그것은 1487년에 베니스에서 인쇄되었는데 그곳에는 단한마디 ‘bible’라는 단어를 담은 한 장의 종이가 앞에 붙어있었다.(澁川雅俊 1985, 103-104).

1500년에 이르러서는 표제지가 정착되었는데 16세기 이후에는 어떤 책에도 표제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해설과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첨언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난외표제(running heads)이다. 이것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독일 스콜라학파의 철학자 Albertus Magnus의 『가난한 철학 *Philosophia pauperum*』을 브레시아(Brescia)에서 간행한 1490년판이었다. 그러나 난외표제의 사용은 정판(imposition), 즉 같은 조판(torme)으로부터 많은 페이지를 인쇄하는 것이 이 때에 이르러 실행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제지의 도입은 필사로부터 인쇄로 가는 과정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진보를 이룬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표제지의 출현은 세 가지로 그 기원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코덱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둘째는 인큐나블라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세 목록에서 정착된 것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보다 완성된 표제지의 출현은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이후로 보는 견해로 종합할 수 있다.

4.2.2 서지통정에서의 표제지

도서 기술에서 최초의 아이템은 표제지의 전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전사의 서지적 주목적은 정확한 서지적 정보를 알려주는데 있다. 인쇄된 단행본에 대한 서지통정은 항목에 관한 기재 사항을 필요로 한다. 기재사항이란 편목자가 항목에 대한 서명, 저자, 발행사항과 물리적 용기(physical container)에 대한 정보와 같은 서지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편목규칙 제2판은, 인쇄된 단행본의 기재 사항이 불변하는 방법인 영미 편목규정에 따라 기록되려면 편목자가 특정한 출처로부터 서지정보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보의 출처들 중 주된 것은 표제지(title page)이다. 이것은 규칙 2.0B1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인쇄된 단행본의 주된 정보 출처는 표제지 혹은, 표제지가 없을 경우에는 출판물 내에서 표제지를 대신해 사용된 부분을 출처로 한다.” 이것은 편목자가 서지정보를 기입할 때 항목 내의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정보보다도 표제지에서 가져온 정보에 우선권을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규정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속표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표제지는 표제, 도서의 지적내용에 책임이 있는 저자, 책 발행과 인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을 기록해 온 500년의 역사 동안 존재해 온 것들이다.

표제지는 15세기 후반에 인쇄의 소산으로 태어났고, 오랜 기간을 걸쳐 예술적 방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또한 광고와 책 정보 파악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가진 본문, 그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의 표제지는 광고 목적을 위한 광범위한 본문 표현과 도표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현대의 표제지는 이런 본문과 그림 표현을 자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 도서 정보 파악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도서 정보 파악을 어렵게 하는 표제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 혼동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런 혼동은 적어도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용어의 혼동이다. 예를 들어, 『*Canadian BIBLIOGRAPHIES*

Canadiennes』라는 표제지의 문장은 『Canadian Bibliographies Canadiennes』 나 『Canadian Bibliographies = Bibliographies Canadiennes』 로 전사되어야 한다. Compiled by A. W. Pollard & G. R. Redgrave with the help of G. F. Barwick...” 와 같은 저자 언급은 독자에게 G. F. Barwick이 책의 작자 중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dramatised adaptation(극화된 각색)” 과 같은 부제의 사용과 『World’s classics edition, new edition, revised, reset, and illustrated』 과 같은 장황한 간행에 대한 설명은 책 광고를 위한 목적처럼 보이고 도서의 정보 파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혼동은 서지학적 정보가 한 형태 이상으로 나타날 때 도서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의 제목이 『Women of colonial and Revolutionary Times』 라는 부제를 가진 『Eliza Pinchney』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지의 제목은 표제지와 어긋나는 듯 보이는 『Women of colonial and Revolutionary Times』를 보이고 있다. 몇몇의 표제지는 한 개 이상의 제목, 혹은 출판사에 대한 설명을 가진다. 서지 정보의 변화는 표제지에서 볼 수 있었고 한 책의 다른 부분은 책에 대한 정확한 서지 정보라는 측면에 있어 독자들에게 복잡함을 안겨다 준다.

표제지로부터의 명확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은 편목의 중심적 문제였다. 한 책의 기재 사항을 위해 편목자는 책 제목, 저자, 판, 출판사, 다른 물질적 특성들과 같은 서지정보를 기입한다. 15세기 표제지가 탄생하기 전 책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편목자들은 보통 텍스트의 처음(implicits-함축)이나 책의 끝 부분(explicits and colophons-명백함과 판권기)에서 서지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 이후로, 책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표제지는 기재사항 정보의 가장 중요한 출처가 되었다. 책 기재 사항 기록에 있어 표제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서지 기입사항 규칙에 있어 절대적으로 명백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표제지의 정보 출처로서의 이용은 표제지에 관련된 Panizzi의 『The Catalogue of Printed Books in the British Museum』을 위한 91개 규정의 많은 부분을 통한 명확한 부분이다. 편목규칙의 설계자들은 표제지가 서지학적 기재사항을 위한 정보 출처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표제지의 복잡함은 종종 특별한 경우에 대한 개인의 변화와 대처방법을 언급한 수많은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편목규칙 설계자들은 편목자가, 문제나 표제지의 변화를 열거한 규정을 따랐을 것이라 가정했다.

이런 가정은 최근 편목규칙인 AACR2에도 남아있다. 이것은 각 장에 대한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 모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명백해진다. 특별 규정은 많은 부분은 표제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규정이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면, 변화나 특별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규정을 다양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용된다.

편목이나 분류에 대한 입문에서는 종종 책을 기술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다. 표제지는 책 속에서의 위치에 따라 정의되었고, 편목자는 표제지의 기재사항을 그 책을 처음보는 독자를 위해 가능한 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했다. 편목 지침서를 쓴 저자는 규칙 고안자의 가정을 받아들였는데, 그 가정은 표제지에 대한 이해는 당연한 것이며 표제지 디자인의 복잡성이 목록 편집자 개인이 의심을 품기 전까지는 표제지에 대한 서지 정보 파악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심이 생겼을 때, 규정을 적용하고 “하나하나” 기초에 따른 규정 해석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변화와 특별한 경우를 위해 쓰여진 규정과 규정 해석의 많은 수와 전문적 훈련을 위한 지

책 내의 표제지의 한정된 구성은 인상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표제지가 한 세기 이상동안 서지적 기재사항을 위한 정보의 주요 출처로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제지는 결코 그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규정과 규정 해석의 중요성에 대한 한가지 이유는 표제지에 대한 서지 정보의 본성이 단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표제지 디자인은 여러 출판사들을 통해 계속 발전되어 왔고, 규정 해석은 계속해서 수정되었고 표제지에 관련된 여러 변형과 문제점을 감출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편목자들은 규정 해석이 계속적으로 서지적 기재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형과 문제들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런 오류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서 표제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Hagler와 Simmons는 편목규칙에서 벗어나 서지학적 자료 자체의 우수성에 대해 연구한 최초의 학자들이다. 그들은 그 자료를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1) 한 특정한 문헌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감정한 자료(항목 혹은 일괄), 2)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문헌들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 자료, 3) 한 문헌에 대한 지식 내용의 몇 가지 특징을 기술한 자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표제지에 대한 자료가 때때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몇몇 경우의 자료는 “책 내용의 본질은 표제지의 외적인 부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심지어 국립 서지학회의 목록 편집자들은 같은 증거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어놓을지도 모르며, 어떤 편목이나 인용 규정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견해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명백한 것이다. 기술적인 편목을 강조하는 현상인 일반적인 서지 자료와 표제지에 대한 세부적인 서지 자료는 편목규칙과 실행이 명백해질 경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표제지의 불가침성(Title Page Sanctity)이다. 불가침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모순된 원칙으로 흐르려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남태우 1999).

4.2.3 자연어 인공물로서 표제지

표제지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첫째, 표제지는 서지학과 회귀 서지 편목에, 전체적 실체로서 묘사되는 문화적 예술품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접근에서는 위치와 서지 자료의 유형 배치, 표제지의 테두리와 출판사의 고안, 표제지의 규모와 물질적 구성과 같은 표제지의 물리적 구획의 상세한 기재사항을 일반적으로 제공한다. 표제지에 대한 두 번째 접근(편목자들에 의해 수행된 결정 과정과 유사한 듯 보이는)은 쓰여진 자연 언어의 한 형태 내에서 자료 수집의 역할을 하는 표제지에 대한 접근이다. 이런 방법은, 표제지에 대한 자료가 일련의 특징들이거나 특징들이 서로 다른 자연 언어 표현에 발견되는 것들과 비슷한 단어의 집합인 경우이다. 전자는 책의 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분야이고 후자는 책의 서지적 정보를 연구하는 문헌학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목록학적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다.

자연 언어의 한 형태로서 표제지를 연구하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한다. 표제지는 서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지는 단어이고 자연 언어 내에서 단어가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일상적 대화에서 사용되는 구이다. 표제지 본문의 본질은 초기에는 명백하였다. 표제지 용어의 역사는 표제지가 자연적 언어 예술품의 한 종류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의 표제지는 책에서의 텍스트 같은 것이었다. 표제지는 보통 지적 내용을 이루어진 하나의 완전한 단위로 구성된다. 그 단위는 일련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하나의 선형적 묘사로서 제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Sylva Sylvarum*』 이란 책의 표제지는 다음과 같이 읽혀질지도 모른다.

“귀족 Francislo Verulam Viscount St. Alban가 쓴 『*Sylva Sylvarum or naturall*

historie in ten centuries』는 저자가 죽은 뒤 Divinitie의 의사이며 그의 Champlaines 왕족 중 한 명인 William Rawley이 출판하였다. 여기에 작품 전체가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알파벳순 목록으로 첨부한다. 런던에서 William Lee를 위해 John Haviland가 출간하였고 1635년에 John Williams가 구입하였다 ...”

최근의 표제지는 과거의 표제지가 페이지 전체를 가득 채운 형태였던 것과는 다르다. 대신 단순한 원리와 명백한 계획에 따른다. 인쇄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서제와 저자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출판사의 이름은 아래쪽에 위치한다. 제목은 대개 처음에...”와 같은 문제에 대해 동의했다. “written by”와 “published by”와 같은 단어들은 생략하고, 표제지에 대한 서지 정보의 고정된 배치에 의해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이런 다양한 생략의 결과에 따라 현대의 표제지는 종종 간략화된 구의 형태로 나타난다. 단어는 표제지가 보여지는 경우 하나의 선형적 언어 표현의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

현대의 표제지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체가 텍스트의 한 부분과 비슷한 하나의 언어 묘사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표제지에 대한 서지 자료 개개의 단위들은 개개의 언어 묘사로 표현된다. 표제지에 대한 일련의 언어적 특성은 자료의 각 단위와 함께 서지 자료의 단위를 구성하는데 그 단위의 언어 표현은 종종 표제지의 나머지 자료들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런 표제지에 대한 묘사 단위의 독립성은 우리가 표제지를 자연적 언어 표현으로서 재정의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표제지를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표제지 연구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인식하게 해 준다. 한 가지는 표제지 연구의 과정이 그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서지 자료의 개개 단위의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표제지의 서지 자료가 선형적 언어 표현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 언어의 예술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표제지 연구는 자연 언어의 한 집합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인공적 조건에서 문자 언어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언어를 단지 부호나 시각적 대상으로서만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를 의미나 문법적 요소를 지닌 언어학적 요소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부호로서의 문자 언어에 대한 연구는 간단한 시각적 물체로서의 단어나 구를 연구하는 것이다. 반면 언어학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요소의 어휘와 문법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비슷하게 표제지에 대한 서지 자료 연구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표제지에 대한 것과 시각적 물체로서의 서지 자료에 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언어학적 요소의 한 집합으로서의 표제지 연구이다.

5. 표제지의 정립과 인쇄술 발달의 상관성

서지통정 영역에서 획기적인 일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IIB(*Institut international de Bibliographie*)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RBU(*Répertoire bibliographique universel*)라 명명된 세계서지 편찬과 관계되는 측면이며, 또 하나는 RBU 작성을 지원하는 수법의 하나인 분류법 UDC(*Classification decimal universal*)와 관계되는 측면이다. 전자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 종료된 활동이며, 후자는 그 후 활동의 중심이 되어 FID로 계승된다.

RBU는 세계 주요 도서관의 책자체 목록이나 신착 도서목록, 주제서지 등을 카드로 만들

어 혼합 배열한 것이다. 그 목적은 서지정보의 제공에 있으며, 도서나 잡지논문을 정보원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데에 새로움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를 유지하는 근대 합리주의적 동기를 엿볼 수 있다. IIB의 사업 목적이 구텐베르크 이래의 출판물을 망라한 세계 서지를 만드는 데에 있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한 19세기까지의 호사가적인 서지와 동일시하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IIB의 일은 결코 문헌 수록의 망라성에 최대의 중점을 둔 사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헌의 내용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해진 하나의 수단이며, 실제로도 목록이나 서지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망라적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수록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활동은 동서양 불문하고 서지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서지작업은 실제로 인쇄술과는 깊은 연관성을 갖을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인쇄술의 발달이 도서의 얼굴인 표제지의 정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서지통정에 필요한 그 밖의 서지 데이터요소의 구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 정보의 신뢰성, 2) 정보구성의 체계적 구조화, 3) 지식조직화의 구조화, 4) 저작자 개념의 정립, 5) 독서행위의 변화측면을 인쇄술의 발전과의 연관성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구성의 연상적 구조는 기존의 서지원리와 괴리된 측면에서 논술하였다.

5.1 정보의 신뢰성

인쇄술의 발달로 이용 가능한 책의 급격한 증대에 더하여 인쇄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통일되고 표준화된 사본을 제공해주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전의 필사시대에는 하나의 원본에 수많은 사본이 존재하였으며, 그 사본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저자가 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인쇄는 음성언어나 필사매체와 같은 불확실한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안정적이고 확실하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대체시켰다.

역사상 처음으로 독자들은 자신들은 똑같은 텍스트를 읽고 있으며, 자신들이 읽고 있는 것이 정확한 저자에 의하여 쓰여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쇄된 텍스트는 필사시대에는 불가능하였던 높은 수준의 권위와 신뢰성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필사시대에는 필사과정에서의 실수나 의식적인 왜곡으로 인해 책의 최신판보다는 구판이, 그것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높은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조건의 정보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텍스트가 미치는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텍스트의 출처의 권위성에 대해 항상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인쇄는 동일한 수천 개의 사본을 유통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텍스트에 신뢰성을 안겨줌으로써 인쇄된 말의 힘과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아울러 책의 저자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위상을 안겨 주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정보는 낡은 정보에 비해 개선된 것이며, 진보는 개선과 개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신념을 촉진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다

5.2 정보구성의 체계적 구조화

인쇄된 책은 필사된 책에 비해 정보량과 정보의 신뢰성을 현저히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하였다. 필사된 책과는 달리, 인쇄된 책은 색인이 작성되었고 페이지가 매겨졌으며 또한 표제지가 삽입되었다. 그리고 철자도 점차 표준화되어 갔다. 또한 인쇄된 문장은 자기 완결적이고, 가시적이며,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 이같은 정보구성의 양식은 독자들에게 공통된 인용의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 인쇄된 책의 새로운 속성들은 독자들의 사유를 ‘체계의 정신’(esprit de system)으로 재구성하는데 기여하였다.(Eisenstien 1979, 106-106).

5.3 지식조직화의 구조화

또 새로운 인쇄매체는 인간이 지식을 조직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했다. 구두에 의한 의사 전달은 기억에 도움이 되는 군더더기까지 기억해야만 하며, 중세시대 필사본 제작 과정에서는 주관적인 이상(異常) 요소가 개입했다. 그러나 새로운 인쇄매체는 이 같은 여지를 없애므로 지식에 대한 좀 더 이성적이고 빈틈이 없으며, 분석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쇄매체는 인간의 기억을 목차, 페이지, 각주, 색인으로 대체시켜 인간의 끊임없는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 하였으므로 인간의 정신을 현재와 미래에 묶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인간의 의식을 현재와 미래에 묶어서 무제한적인 물질적 이익추구라는 새로운 상업개념과 인간 진보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인쇄는 도표, 그래프 같은 다양한 장치를 도입했다. 이런 시각적 보조물은 세계를 좀더 정교하게 묘사하는데 더없이 요긴한 역할을 했다. 인쇄는 또 표준화되고 쉽게 재생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육로와 해로를 통한 여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었다.

인쇄매체가 상업적 계약 문화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상인과 자본가들은 매우 복잡한 상업활동을 조정하고 광범위한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부기, 거래목록, 선하증권(船荷證券), 송장, 계산서, 약속 어음 등은 시장 자본주의에서 필수적인 경영도구가 되었다. 또 인쇄매체는 일정한 가격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일정한 가격체계가 가능하지 않았다면 시장과 소비라는 근대적 개념은 발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쇄매체는 민족주의가 용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 국가의 출현이 촉진되었다. 국가 고유의 언어가 인쇄물로 표현되면서 집단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을 프랑스인, 영국인, 독일인, 스웨덴인 등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인쇄매체는 근대적 정부 관료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필수적인 상세한 기록보존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쇄매체 혁명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와 함께 행동방식, 세계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인쇄매체 발달로 인하여 현상을 질서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체계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선형적, 순차적, 그리고 인과적 사고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생각을 ‘구성한다 composing’는 개념은 곧 사상을 생각해 내어 선형적으로 진행시켜 간다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다. 즉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상에서 다음 사상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구두 문화에서의 사고방식과 매우 다르다. 자신의 생각으로 ‘엮는다’는 것은 논리적 연쇄에 따라서 하나의 관념을 또 하나의 관념으로 발전시키는 직선적 연결고리를 연상시킨다. 이런 방식은 대화 도중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끊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던 구술 문화의 사유방식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즉, 구두 문화에서는 대화과정에서 불필요한 말과 논리적으로 연

결되지 않는 부분이 보통 있게 마련이다.(Rifkin 1998; 전영택, 전병기 1999, 320).

5.4 저작자 개념의 중요성

또한 인쇄매체로 인해 ‘저작자’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개인 저작자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나 저작자의 수는 매우 적었다. 필사본 제작은 종종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이 필사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필사본을 손으로 완성하는데 수 세대에 걸쳐 이루지는 경우도 보통 있는 일이었다. 저작자 개념은 개인을 독특한 지위에 올려놓아 그가 속한 사회의 집단적 목소리와는 구별되게 한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관념은 자기가 쓴말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발상으로 연결되었다. 저작권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의사 소통을 하는 수단을 상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개인이 생각과 말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듣고 싶은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발상은 인간 관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을 이룬다.(Rifkin 1998; 전영택, 전병기 1999, 321).

개인의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며, ‘유일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개인이 문명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와 초기 계몽사상가들은 기업가 정신과 경쟁적 개인주의를 매우 옹호했는데 이도 소급해 보면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인쇄매체에 의한 의식 변화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글을 소유한다는 생각과 함께 저작자라는 관념이 더욱 더 깊어졌다. 저작권법은 처음으로 사람 사이의 통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다. 개인이 사상과 말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듣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 관계의 역사상 하나의 발전된 전환점이 되었다. 개인의 사상과 시장에서의 개인의 노동이 갖는 상품적 가치-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교의중 하나이다- 에 대한 존 로크 사상은 저작권 및 저작권법이 가져온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5.5 독서행위의 변화

한편 필사된 책과 인쇄된 책은 일정한 물리적 표면 위에 비슷한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각적 訴求力이 동일하고 따라서 독자의 인지태도에 동일한 영향과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쇄 이전의 필사된 책은 개인이 혼자서 조용히 눈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듣는 매체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쇄발명 이후에야 비로소 독서방법에서도 소리없는 혼자만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쇄매체의 특성은 근대법 질서의 생성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즉 인쇄된 문장을 필사와는 달리 종이 위의 말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유습관을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고래의 관습, 구전되어 오는 전통 그리고 법을 “인간의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어떤 무엇으로 바라보는 중세의 시각 등에 더 이상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인쇄는 보통 최초의 “대중”매체로 인정되고 있지만, 식자층의 확대와 새로운 읽는 습관은 동시에 그것을 최초의 효율적인 “개인”매체가 되게 하였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인쇄는 이전의 수기사회에서는 불가능했던 개인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독서행위의 변화는 사유의 변화도 동시에 수반하였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구두로, 서로 만나서 나누는 대화로 생각을 공유했다. 심지어는 필사본까지도 큰 소리로 읽었다. 필사본의 일차 용도도 독서가 아니라 낭독에 있었다. 인쇄혁명은 차분히 성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책이란 것은 혼자서 조용히

읽는 것이 제격이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관념이 싹텄다. 아울러 자기를 반성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세계를 치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고 방식으로 발전했다. 또한 인쇄는 문맹률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새로운 시장과 노동 및 조직환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수단을 후손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요컨대, 인쇄는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데 어울리는 마음가짐과 세계관을 안겨주었다.

5.6 정보구성의 연상적 구조- 하이퍼텍스트

인쇄된 책에 담겨있는 정보는 본질적으로 선형적 조직구조(a linear mode of organization)를 가질 수밖에 없다. 책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책의 내용은 저자가 설계하고 선호하는 방식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의 구조와 방향선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목차라는 것만 하더라도 저자가 제시하는 길의 성격을 요약하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인쇄된 책의 선형적인(linear) 진행이라는 형식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고립적인 인쇄문화와 달리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구술문화의 특성을 회복하는 면이 있다. 이것은 질 들뢰즈가 권위주의적인 수목적(arborescent) 문화와 구별한 근경적(rhizomatic)문화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던 세계의 한 양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적 디지털 텍스트에 의해 창조되는 세계, 즉 역동적이고, 양 방향적이며, 이미지와 소리가 언어적 의미보다 더 중시되는 세계가 포스트모던 세계이다. 이 점에서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시대의 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가 가지는 몇 가지 구조적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러한 희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nonlinearity)이다. 순차적 질서나 위계적(hierarchical), 조직적인 구조를 결여한 채 혼란스럽기(chaotic)까지 한 것이 하이퍼텍스트의 구조이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닮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이퍼텍스트의 이러한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이야기, 탈-중심, 탈-주체, 탈-로고스의 논의와 그 맥이 이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서지데이터요소의 우선순으로서의 표제지의 신성권도 탈-표제지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물리적 형식에서 콘텐츠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내지 ‘하이퍼미디어’라는 말은 이용자나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스크린상의 정보 속을 이동하거나 그 정보를 넘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는 화면상의 정보를 가리킨다. 하이퍼텍스트는 정보들 사이를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고 인쇄로는 불가능했거나 적어도 아주 힘들었던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새로운 도구인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제본된 자료에서 가능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유연한 방식으로 정보가 같은 작업장 내에 있는, 또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정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이퍼텍스트는 이용자가 제본으로 인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한다.

연결장치는 단일 텍스트내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또는 상이한 위치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텍스트들의 부분들 간에 설치할 수 있다. 요컨대, 하이퍼텍스트는 “이용자가 관련된 사상들 사이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단위부분들이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결국 하이퍼텍스트는 뉴미디어가 지닌 상호작용적 기능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쇄매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고를 수 있는 선택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인쇄된 책은 분명한 공간에 존재하고 선형적인 방식으로 읽혀지도록 설계되었다. 페이지 수, 목차,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색인 등이 책에는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결국 독자가 관심있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는, 특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하에서는 이를 훨씬 넘어서, 독자가 자신이 읽고 있는 대상물의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료의 출처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이 담긴 자기만의 개별화된 자료집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게 하여 준다.

하이퍼텍스트의 핵심 개념은 서로 관련된 내용을 서로 연결하여 쉽게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는 문서의 내용을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접하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순차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작용과 매우 흡사한 비순차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켜 놓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자신의 사고에 따라 보다 쉽고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는 데 이러한 인간의 연상작용의 원리에 따라 정보를 표현한 것이 하이퍼텍스트이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미디어처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다루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multimedia system)이 부가된 "하이퍼미디어"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매체의 서지통정은 또 다른 도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다양한 접근점을 요구하고 있어 서지통정의 딜레마를 불러오고 있다. 목록에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통제의 원리는 이제는 그 '통제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장받아야 할 시점이다. 이의 출발점은 웹 목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끝은 보이지도 가지적이지도 또는 추측되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웹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접근통제나 전거통제의 원리가 이제는 접근의 자유와 전거의 자유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시작은 결말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말은 어떤 형식적이고 주체적인 종결을 요구한다.

6.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제지란 목록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다. 일반적으로 완전서명, 저자명, 협력자명, 발행사항을 포함한 문헌이나 장서의 페이지를 지칭한다. 표제지는 목록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정보원이다. S. R. Ranganathan에 의해 개관된 편목의 극단철학은 표제지 중심론이다. AACR1과는 달리 Ranganathan은 그의 CCC에서 적합 정보를 얻는데 표제지 이상만한 곳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AACR2에서는 AACR1보다는 표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제지는 서지데이터요소 체계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표제지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을 준다는 서지주의적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둘째, 편목규칙상의 표제지에 대한 규정은 근대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대목록규칙의 시원인 Panizzi 규칙 제20조에서는 표제지가 없는 경우에 기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제지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콘텐츠, 헤드타이틀, 판권지를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17조에 서명, 판차는 표제지에 있는 대로 표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최초의 편목규칙인 스미소니언목록규칙에서 Jewett는 표제지에 나타난 정보를 중요시하였다. 표제는 저자명, 편자명, 역자명, 주석자명, 보유자명을 포함해서 표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정확히 완전하게 옮겨 쓰라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지 데이터의 체계에서 표제지

의 중요성은 목록규칙에서 매우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이로부터 서지레코드의 신뢰성, 정확성, 역사성에 의해 그대로 전사한다라는 전통이 자리잡은 것이다.

셋째, 표제지의 출현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다. 1)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필사본의 'incipit' 즉 본문의 첫 번째에 나오는 말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즉, 사본의 경우 오늘날 표제지에 포함되는 사항을 본문이 시작되는 최초 면 즉, 본문의 앞에 몇 행으로 기재했다. 이것은 시작의 뜻을 가진 'incipit', 'Cy Commence', 'Hiero Begtnneth' 등과 또한 이것과 유사한 낱말로 시작하고 다음에 자료에 관한 기술과 저자의 이름을 추가했다. 그래서 'incipit'에 시작하는 몇 행은 본문과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주서로 필사하기도 하였다. 이 'incipit'에 시작되는 몇 행이 표제지의 역할의 일부를 담당했다는 설 2) 고대 도서관에서 두루마리에는 저자 이름은 물론 페이지 수를 표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코덱스에서는 표지, 목차, 페이지수, 색인, 참고문헌이 나타났다. 이러한 서지정보의 패턴화로 학문은 더욱 정확하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표제지의 기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3) 인큐나블라(incunabla)사본시기부터 정립되었다는 이론, 4) 1850년대 인쇄술의 발달시기에 정립되었다는 이론 등 4가지로 이론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이 표제지를 정립하게 된 결정적인 동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쇄술이 표제지 정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1) 정보의 신뢰성, 2) 정보구성의 체계적 구조화, 3) 지식조직화의 구조화, 4) 저작자 개념의 정립, 5) 독서행위의 변화측면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구성의 연상적 구조는 기존의 서지원리와는 다른 탈-서지 측면에서 논술하였다

참고문헌

- 남태우. (1999). 미래의 목록법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28집.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정태원 역편. (1986). 出版·印刷·圖書館學·著作權·書誌·매스컴의 事典. 서울, 일서각
- 현규섭. (1983). 書誌記述의 原則確立을 위한 覺書. 도서관 Vol. 38, No. 1.
- 志村尙夫. (1981). 目錄學序說; 원리와 사례에서의 어프로치. 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 河合忠信. (1970). 「Title Page」雜考, 仙田正雄教授古稀記念. 圖書館資料論集, 天理, 仙田正雄教授古稀記念會.
- 澁川雅俊. (1968). 目錄의 歷史. 東京, 勁草書房.
- Blackburn, Charles F. (1884). *Hints on Catalogue Titles, and on Index Entries, with a Rough Vocabulary of Terms and Abbreviations, Chiefly from Catalogues, and Some Passages from Journeying among Books*. London: Sampson Low, Marston, Searle, and Rivington.
- Brault, Nancy. (1972). *The Great Debate on Panizzi's Rules in 1847-1849: The Issues Discussed*. Los Angeles, UCLA School of Library Service.
- Butler, Pierce. (1953). Bibliographical Function of the Library. *Journal of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9(7): 3-11. 서지 세계의 항해(navigating)라는 개념은, 설사 그것이 "navig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20세기 문헌정보학문헌에서 거의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Carlyle, Allyson. (1996). *Descriptive Functions of the Catalog*. Kent, Ohio, Kent State Univ., SLIS.
- Casson, Lionel. (2001).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Ann Arbor, Mich., Yale Univ. Press.
- Chan, Lois Mai. (1981).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Hill

- Book Co.
- Cutter, Charles A. (1876).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 U.S. Bureau of Education, Special Report on Public Libraries, Part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utter, Charles A. (1904).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 4th ed. U.S. Bureau of Education, Special Report on Public Libraries, Part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elsey, Tom. (1989). "Standards for Descriptive Cataloging: Two Perspectives on the Past Twenty Years." In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51-64. San Diego: Academic Press.
- Dunkin, Paul. (1969). *Cataloging U.S.A.*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Eisenstein, E. (1979).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for Chang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Gorman, Michael (1992). After AACR2R : The Future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The Origi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Smiraglia, R. P., Chicago, ALA.
- Gregor, Dorothy & Mandel, Carol. (1991). Cataloging Must Change!. *Library Journal*, 1991. 1.
- Hagler, Ronald. (1977). "Changes in Cataloging Codes: Rules for Description." *Library Trends* 25: 603-623.
- Hagler, Ronald. (1989). "The Consequences of Integration." In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197-218. San Diego: Academic Press.
- Hanson, J. C. M. (1909). *A Comparative Study of Cataloging Rules Based on the Anglo-American Code of 1908*. The University of Chicago Studies in Library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87).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 Rev. ed. London: IFLA UBCIM Programme.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97).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Electronic Resources*. Frankfurt am Main: Deutsche Bibliothek; IFLA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 Programme.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98).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Recommended by the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UBCIM Publications, New Series Vol. 19. Munich: K. G. Saur.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99). *Principles Underlying Subject Heading Languages (SHLs)*, edited by Maria Inês Lopes and Julianne Beall for the Working Group on Principles Underlying Subject Heading Languages, Section on Classification and Indexing. A UBCIM publication. Munich: Saur.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1962). *Repor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9th-18th October, 1961*. Lond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 International Meeting of Cataloguing Experts (IMCE). (1970). "Report of the International Meeting of Cataloguing Experts, Copenhagen, 1969." *Libri* 20: 105-132.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97).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Electronic Resources*. Frankfurt am Main: Deutsche Bibliothek; IFLA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 Programme.

- Jewett, Charles C. (1853).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of a General Catalogue and Their Publication by Means of Separate, Stereotyped Titles with Rules and Examples*. 2nd ed.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 Kumar, Girja & Kumar, Krishan. (1986). *Theory of Cataloging*, 5th Rev.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 Layne, S. S. (1989). Integration and Objective of the Catalog. In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San Die, Academic Press.
- Library of Congress, Processing Department. (1946). *Studies of Descriptive Cataloging: A Report to the Librarian of Congress by the Director of the Processing Department*.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 Lubetzky, Seymour. (1953).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Critique of the A.L.A. Rules for Entry and a Proposed Design for Their Revision. Prepared for the Board o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Processing Department.
- Lubetzky, Seymour. (1956). The Function of the Catalog,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17.
- Lubetzky, Seymour. (1969). *Principles of Cataloging. Final Report. Phase I: Descriptive Cataloging*.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Library Research.
- Mann, Margaret. (1943).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ALA. pp. 13-27.
- Miksa, Francis L. (1983). *The Subject in the Dictionary Catalog from Cutter to the Presen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Osborn, Andrew D. (1941). "The Crisis in Cataloging." *Library Quarterly* 11: 393-411.
- Pettee, Julia. (1936).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the Formation of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Library Quarterly* 6: 270-290. Reprinted in *Foundations of Cataloging: A Source Book*, edited by Michael Carpenter and Elaine Svenonius, 172-189.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85.
- Ranganathan, Shiyali Ramamrita. (195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Library Association.
- Ravilious, C. P. (1975). *A Survey of Existing Systems and Current Proposals for the Cataloguing and Description of Non-book Materials Collected by Libraries: With Preliminary Suggestions for their International Co-ordination*. Paris: Unesco.
- Rifkin, Jeremy. (1998). *The BioTech Century*, 정영택, 전병기 공역. (1999). 서울, 민음사.
- Rowley, J. E. (1989). Towards AACR3 : A Review of the Implication of OPACs for the Cataloguing Codes and Practices, *Library Review*, vol 38, no. 3.
- Svenonius, Elaine. (2000).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Tillet, Barbara B. (1992). Future Cataloging Rules and Catalog Records, in *The Origi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R. P. Smiraglia, Chicago, ALA,
- Verona, Eva. (1959). Literary Unit versus Bibliographical Unit, Copenhagen, Munksgard International Publisher, Ltd., *Libli* 9. pp. 79-104.
- Weiner, Norbert. (1950).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Cybernetics and society*. Boston, The Houghton Mifflin.
- Wilson, Patrick. (1968). *Two Kinds of Power: An Essay on Bibliographical Control*.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Wilson, Patrick. (1983). The Catalog as Access Mechanism: Background and Concepts. *LRTS*, 27.
- Wilson, Patrick. (1989). Interpreting the Second Objective of the Catalog. *Library Quarterly* 59.
- Wilson, Patrick. (1989b). "The Second Objective." In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5-16. San Diego: Academic Press.
Wynar, Bohdan S. (1985).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6th ed.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pp. 19-23.

K C I